

# 미국문화와 라틴문화의 ‘어긋난 조우’와 탈경계성 연구: 테오도르 루스벨트와 호세 마르티, 그리고 1898년 미서 전쟁을 중심으로

신 명 아  
(경희대학교)

## 개신교 앵글로-색슨 미국과 로마 카톨릭교 라틴아메리카의 충돌

현재 미국의 텍사스, 아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유타, 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는 미국이 원래 스페인으로부터 혈값에 사들였거나 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인해 얻은 영토이다. 미국이 당시 멕시코 땅의 반인 이 영역들을 차지하기 전까지 이곳 사람들은 멕시코인들이었다. 이들은 하루 사이에 미국인으로 국가 정체성을 강요받았고 새로운 앵글로색슨 정착민들에 의해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강압적으로 빼앗긴 후 자신이 주인이었던 농장의 일꾼으로 전락하였다.

미국문화와 라틴문화의 충돌은 1848년에 시작된 미국 영토 팽창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퍼슨 대통령은 건국초기인 1801년에 메리웨더 루이스(Meriweather Lewis)와 윌리엄 클락(William Clark)이라는 탐험가로 하여금 스페인 점령지를 탐험하게 하였다. 라몬 살디바르(Ramón Saldívar)는 제퍼슨 같은 미국의 “건국한 아버지”(founding fathers)가 당시 스페인과의 경계 지역은 전쟁이

---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2A-A00-170).

일어나기만 하면 미국의 땅이라고 예견하였음을 지적한다.<sup>1)</sup> 미국은 헐값에 플로리다를 스페인으로부터 사기 위해 남미대륙의 미란다(Miranda), 볼리바르(Bolívar)가 주도한 독립운동을 방해할 정도로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에 충실하였다. 당시 미국 지도자들에게 “서부로의 발전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 개척지(frontier)[새바인 강을 경계로 한 스페인과의 경계지]가 영원히 한계이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이 경계는 고착된 분계선이 아니라 이동하는 요새, 하나님의 전진하는 왕국의 변방(Bercovitch 1981, 23)이었다.”<sup>2)</sup> 1823년에 미국은 멕시코 점령지이던 텍사스에 미국 정착민들을 보내 거주시킨 후 1836년에 텍사스로 이주한 앵글로색슨계 개척민들을 이용해 멕시코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한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군대를 보내 엘라모 요새의 미국 정착민들을 몰살시킨다. 여기서 몰살당한 데이빗 크로켓(David Crockett)은 서부개척민의 전형으로 미국인의 영웅이 되며 텍사스주 사업가이던 샘 휴스턴(Sam Houston)은 엘라모의 비극이 일어난 지 두 달 후 “엘라모를 기억하라!”는 경구로 주민들의 전의를 북돋아 멕시코 군인들을 텍사스로부터 몰아내고 텍사스공화국을 건설한다. 그러나 1845년 앞으로 도래할 멕시코와 미국의 전쟁의 암운을 읽은 텍사스공화국은 미국과 합병한다.

이런 영토의 확장에 힘을 얻은 미국은 1846년부터 시작된 멕시코와의 전쟁으로부터 1848년에 승리한 후 리오그란데 강을 경계로 생긴 미국의 경계 위에 오늘날 2000마일의 “또르티야 커튼”(Tortilla Curtain)이라 불리는 장벽

1) Rarmón Saldivar, *Chicano Narrative. The Dialectics of Difference*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1990) 14-15면. 라몬 살디바르 인용문. “1803년 루이지애나 구매(Louisiana Purchase) 이후 로마 천주교, 혼혈적인 멕시코 사회와 개신교적, 미국이라는 앵글로-미국 사회는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서, 19세기 중반까지 멕시코와 미국의 정치적 역사를 결정짓는 텍사스 지방을 위해 경합을 벌인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계획은 [미국이 영국식민지일 때]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멕시코와 쿠바를 미래의 영국 식민지 확장을 위해 지목하였던 1767년이라는 이른 시기에조차도 하나의 드러내놓은 야망이었다. 그러나 1809년에는 야망이 거의 국가적 정책으로 변하여서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당시] 스페인 경계 지역은 ‘전쟁이 [하시라도] 우리에게 강요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것이다’(Acuna 1981 3)고 하였다.”

2) R. Saldivar, 앞의 책 15면.

을 만들어 많은 멕시코인들의 이동을 가로막았다. 과거 중국의 제국이 1500마일에 이르는 만리장성을 세워 변방의 타자들로부터 제국을 보호하였듯이, 미국이라는 제국은 그 보다 더 긴 장벽으로 원래의 땅주인이던 멕시코의 후손들의 이주를 막았다. 라몬 살디바르는 이 미국 남서부의 멕시코인들은 하루아침에 강요된 미국인의 정체성으로 혼돈을 겪으면서 아메리코 파레데스(Americo Paredes)가 말한 혼종문화를 발달시켰다고 한다.<sup>3)</sup>

이 논문은 미국적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에 입각한 미국문화와 혼종성의 라틴아메리카 문화가 서로 만나고 충돌하는 양상을 미서전쟁(Spanish-American War)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두 문화의 충돌 양상은 각 문화를 대표하는 테오도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와 호세 마르티(José Martí)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잘 보여진다. 루스벨트는 미국의 팽창주의의 핵심인물로 1898년 미서전쟁을 일으켜 스페인으로부터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등을 해방시켜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확보하도록 한 지도자이다. 반면에, 호세 마르티(José Martí)는 쿠바의 독립을 위해 스페인과 싸우다가 전사하였지만, 생전에 미국 뉴욕에서 15년간 망명하면서 미국 제국주의의 위험을 경고한 지도자이다. 루스벨트와 마르티의 정치적 이상과 실질적 행동을 비교하면서 미국 제국주의의 실상을 살펴본다. 또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의 대안으로서 혼종성(hybridity)과 경계지(borderlands)를 기초로 한 호세 다비드 살디바르(José David Saldívar)의 경계이론(border theory)의 저항적 양상을 살펴본 후, 이런 경계지 혹은 혼종성을 기초로 미국 제국주의의 현상에 대항하는 정치적 저항의 더 진전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미국적 예외주의와 미국 팽창주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금광의 발견으로 “모든 공장은 유럽에”라는 구호를 외치던 제퍼슨의 중농주의가 막을 내리고 산업화가 시작되자, 1869년 철도의

3) R. Saldívar, 앞의 책 17면.

건설로 동서 대륙이 연결된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바다를 경계로 개척의 한계에 다다르자 하와이, 괌, 쿠바, 필리핀 등의 스페인 식민지에 눈독을 들이고 1822년 “아메리카는 유럽 강국의 미래 식민지의 주체로 간주될 수 없다”는 먼로주의를 발표하였다.<sup>4)</sup> 먼로주의의 강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정세에 개입을 하게 되며 미국은 식민지를 반대하는 외교적 정책을 스스로 배반한다. 후안 곤살레스(Juan Gonzalez)에 의하면, “자신의 정책을 영예롭게 하지 못한 미국의 노력들보다 더 나쁜 것은 [먼로 이후] 계승한 대통령들이 이 강령을 위반한 양태이다. 라틴 아메리카, 특히 카리브해 영역을 명목상의 미국 영향권으로 집어넣었다. [혁명가] 볼리바르(Bolívar)는 점증하는 북미의 오만을 규탄하며 죽기 전에 미국이 ‘자유의 이름으로 아메리카를 고통으로 뒤덮는 운명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탄식하였다. 20세기에 도 후대의 대통령들이 먼로의 말을 이용하여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sup>5)</sup>

볼리바르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운명”으로 언급한 것은 미국의 팽창 시기에 제국적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연관이 있다. 미국은 건국초기부터 유럽이라는 구세계(Old World)를 떠나 “언덕 위의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신세계에 왔다는 존 윈스롭 같은 청교도들의 이상에서 드러나는 “명백한 운명”에 입각한 미국적 예외주의를 발달시켰다. 미국 청교도들의 초기 정착에 대한 미국학의 연구는 한마디로 신화 만들기과 허구에 기초하였다. 호세 다비드 살디바르는“(내가 1987년 다트머드 대학(Dartmouth College)의 비평과 이론 학교에서 버코비치와 공부할 때 형성된) 미국학에 대한 나의 견해는 주류 미국이 학자와 군인들, 인류학자와 증가하는 여행이론가들이 기본적 텍스트로 만든 일종의 인공물(artifact)이다”고 말한다.<sup>6)</sup> 초기 미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페리 밀러(Perry Miller)의 “황야로의 심부름”이라는 개념과 프레데릭 잭슨 터너(Frederick

4) Juan Gonzalez, *Harvest of Empire. A History of Latinos in America* (New York. Penguin Books, 2000) 37면.

5) Gonzalez, 앞의 책 39면.

6) José David Saldívar, *Border Matters: Remapping American Cultural Studie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7) 161면.

Jackson Turner)의 미국의 개척지에 대한 강조는 미국 원주민과 그들의 문화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신화로 자리 잡는다. 이 신화에서 미국 대륙은 서구인에 의해 “발견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양 미국 원주민의 존재와 문화 양식 그리고 스페인계열 혼혈 정착민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 개척지를 논하는 터너는 서부로의 경계 외에 남쪽의 경계지와 멕시코를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학 연구자들은 초창기 정착시절에 대한 신화 만들기에서 헨리 내쉬 스미쓰(Henry Nash Smith)처럼 미국의 땅을 “세계의 정원”으로 낭만화하거나, 청교도들이 대면하는 아메리카의 자연과 문화를 “아우성치는 황야”(howling wilderness)로 폄하하였다. 또한, 터너의 개척지 가설(frontier hypothesis)에서는 아메리카의 자연을 다니엘 분이나 데이빗 크로켓 같은 용맹스런 개척민들이 모험을 하러 가는 처녀지(Virgin Land)라고 신화화하였다. 역사가 프란시스 제닝스(Francis Jennings)는 정착민들의 등장으로 면역성이 없던 질병에 의해 사라지거나 영토점령의 목적으로 죽임을 당해야하는 미국 원주민의 실상을 설명하면서, “아메리카 땅은 처녀지라기보다 과부(a widow)였다. 유럽인들은 여기서 황야를 발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얼마나 비자의적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과부를 만들었다”고 말하였다.<sup>7)</sup> 도널드 피스(Donald Pease)는 “이런 언급들은 신화-상징 해석 학파와 발맞추어, 전형적인 미국적 자아(American Adam)가 ‘우리의’ 처녀지를 ‘이질적’ 침범(The Power of Blackness)으로부터 해방시키위해 일종의 추구 로망스(Errand into Wilderness)로 발달시킨 것이다”고 말한다.<sup>8)</sup> 미국 제국주의의 비판가, 리차드 슬롯킨(Richard Slotkin)과 아넷 콜로드니(Annette Kolodny)는 미국에 대한 메타담론과 처녀지 같은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미국 원주민 살해, 개척지에서의 폭력, 정부에 의한 도둑질, 땅의 황폐화, 계급적 잔학성, 인종적 야만성과 여성혐오를 감추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위장”임을 강조한다.<sup>9)</sup>

7) Gonzalez, 앞의 책 10면.

8) Amy Kaplan and Donald E. Pease, eds., *Cultures of United States Imperial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3) 24면.

9) Kaplan and Pease, 앞의 책 24면.

미국문화에 대한 신화의 저변을 형성하는 미국적 예외주의의 모체인 “명백한 운명”의 이데올로기는 미국 원주민의 대거 학살에도 적용되었다. 프리실라 왈드(Priscilla Wald)는 1831년 체로키 부족과 조지아주의 법적 투쟁을 둘러싼 담론에서 법조인 태이니(Taney)의 해설을 설명하면서, “태이니는 미국 민족의 '명백한 운명'인 진보적 운동 안에서 미국 원주민의 제거를 기입하기 위해 불가피성의 수사학을 사용한다. 독립선언문의 아련한 그의 메아리는 (...) [미국 원주민] 종족의 정복이 (...) 미국혁명의 조건 안에 있음을 확실시한다”고 말한다.<sup>10)</sup>

이 명백한 운명이라는 개념은 1836년 앵글로 색슨인들이 텍사스주를 멕시코로부터 쟁취한 이후 영토적 팽창주의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세운 개념이다. 1839년 뉴욕 시의 한 언론인 존 오설리번(John O'Sullivan)은 “미래의 위대한 국가”라는 그의 글에서 “명백한 운명”을 처음 소개한다.<sup>11)</sup> 오설리번이 말한 명백한 운명은 청교도 2세대, 3세대에 걸쳐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미국 사람들이 초창기 청교도들의 원래 사명, “신성한 심부름”을 다시 기억할 것을 종용하는 설교나 연설인 “미국적 예레미아서”(American Jeremiad)의 느낌을 준다. 문제는 이런 명백한 운명의 이데올로기가 당대에서만 아니라 오늘날의 미국의회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미국인의 의식의 저변을 이루며, 미국적 팽창주의와 미국적 제국주의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명백한 운명의 이데올로기는 스페인 식민지 쿠바와 미국의 관계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쿠바는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라틴 아메리카 영토이고 미국의

10) Kaplan and Pease, 앞의 책 76면.

11) Amy Kaplan, *The Anarchy of Empire in the Making of U.S. Culture*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2002) 30-31면. 오설리번의 “명백한 운명” 설명. “멀리 펼쳐지는, 끝을 모르는 미래는 미국적 위대함의 시대가 될 것이다. 공간과 시간의 그 광대한 영역 안에서 많은 나라들로 구성된 나라는 인류에게 신성한 원칙들의 탁월성을 표출하기로(manifest) 운명되어졌다; 지구 위에서 가장 지고한 것—신성함과 진실함의 경배에 언제나 헌신하는 가장 고귀한 사원을 건설하기로 운명되어졌다. 이것의 땅바닥은 반원구이며—이것의 천정은 별이 박힌(star-studded) 하늘이고, 이것의 구성원들은 어떤 인간주인에게도 빚지지 않고, 평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법에 의해 통치되는 수 억 명의 행복한 사람으로 구성될 것이다.”

안보를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또한 미국의 “뒤뜰”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곳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과 담배와 바나나는 미국에게 필수한 자원들이었다. 따라서 쿠바는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군침을 흘리는 땅이었다. 루이스 페레스(Luis A. Pérez Jr.)라는 역사가는 “토마스 제퍼슨이 1823년이라는 이른 시기에도 제임스 먼로에게 ‘[쿠바를] 우리 영토로 추가하는 것은 한 나라로서 우리의 권력을 최고로 이득이 되게 할 수 있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다’”고 하였다.<sup>12)</sup>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은 여러 차례 스페인에게 쿠바를 팔 것을 제안하였다.<sup>13)</sup> 이런 구매 제의가 실패로 돌아가자, 제퍼슨과 그 후의 미국정부는 쿠바가 그나마 스페인에 점령당한 상태가 안전하다고 보고, 워싱턴 어빙 같은 스페인대사들을 통해 스페인으로 하여금 쿠바를 어느 다른 국가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비양도 원칙”을 강요하였다. 쿠바의 크레올 지식층과 스페인계 혼혈인, 미국 흑인들은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 막시모 고메스(Maximó Gomez), 칼릭스토 가르시아(Calixto García), 흑인 지도자, 안토니오 마세오(Antonio Maceo)를 사령관으로 1868년부터 1878년까지 10년을 스페인과의 전쟁을 벌였다. 1895년에는 2차로 호세 마르티가 “쿠바 리브레”(Cuba Libre. 자유 쿠바) 운동을 위해 뉴욕, 탬파, 플로리다 등지에서 모금을 한 후, 쿠바에서 사령관의 한 명으로 독립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쿠바인이 스스로 독립과 주권을 쟁취하여 그들을 향한 미국의 목소리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페레스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쿠바의 독립이 가능하였음을 강조한다.<sup>14)</sup> 미국이 쿠바의 자주적

12) Louis A. Pérez, Jr., *The War of 1898: The United States & Cuba in History & Historiography* (Chapel: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98) 5면.

13) 예를 들어, 제임스 포크(James Polk) 대통령은 1848년에 일억 달러(\$100 million)를 제의했으며, 6년 후인 1854년에 프랭클린 피어스(Franklin Peirce) 대통령은 일억3천만 달러를 제의하였었다.

14) Pérez, Jr., 앞의 책 79면. 페레스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98년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에서 확실히 누락된 것은 미국 개입이 쿠바의 승리가 임박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을 가능성이라는 사실이다 (...) 줄리어스 프랫(Julius Pratt)은 ‘맥킨리가 스페인과 좀 더 인내하고 [미서전쟁을 하라는] 국회를 거부할 정도로 단호하였더라면,’ 전쟁을 피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역시, 제임스 포드 로즈(James Ford Rhodes)도 맥킨리가 대중의 목소리에 굴복하지 않았었고,

독립을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쿠바를 빌미로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치른 후 얻게 되는 그 영토적 확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상원의원, 스티븐 엘킨스(Stephen Elkins)는 스페인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미국의 명백한 운명이라고 강조하며 전쟁을 호소하였다.<sup>15)</sup>

미국에게 다행이게도 이런 제국주의적 야망에 부응한 사건이 일어났다. 1898년 2월 아바나 항구에 정박해있던 미국 군함, 메인(Maine) 호가 폭발하여 선원 354명 중 266명의 선원이 죽음을 맞게 된다. 이 사건은 미서전쟁을 치르느냐 마느냐라는 두 의견의 충돌을 잠식시키고 과거 텍사스 공화국이 “엘라모를 기억하라!”라는 구호로 멕시코로부터 텍사스를 확보하였듯이, “메인호를 기억하라!”는 기치 아래 미서전쟁을 결의하게 만든다. 일부 미국의 역사가들은 메인호를 파괴한 것이 쿠바가 미국을 전쟁에 개입시키기 위해 일으킨 것이라고 하지만, 페레스 같은 역사가는 이런 견해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976년에도 거행된 조사에서 “6인치 리저브 탄창 옆에 있던 석탄 병커에서의 불의 열기” 때문이라고<sup>16)</sup> 다시 발표되었지만, 아직도 누가 배를 폭발시켰는지는 수수께끼이다. 그러나 이 전쟁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는 분명하다. 곤살레스에 의하면, 미서전쟁에서 “스페인의 패배는 제퍼슨, 존 퀸시 아담스와 다른 건국한 아버지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것. 카리브해의 가장 유스가 풍부한 플럼 열매, 쿠바를 미국의 손바닥에 던져 넣어, 다음 세기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앵글로-미국의 점령을 확보하게 했다.”<sup>17)</sup>

---

‘자기의 정책을 버리면서 전쟁 그룹[루스벨트]으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스페인은 ‘쿠바에게 독립을 허락하도록 유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맥킨리가 배제하려고 노력해왔던 바로 그 하나의 결과이다.’

15) Pérez, Jr., 앞의 책 49면. 엘킨스에 의하면, “쿠바가 미국의 한 부분이 되고 [파나마의] 만 운하가, 지금은 확실하건데, 완성이 된다면, 푸에르토리코, 쿠바, 하와이와 필리핀은 이 위대한 공화국의 요새가 되어, 세계 무역의 경로에서의 미국적 이익을 전 세계적으로 그 승리의 행진 속에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민중들은 이 미국에 속할 섬들의 소유가 자연적이며 논리적임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계의 사건에서 우리가 맡을 위대한 역할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세계의 반을 포함하는 이 찬란한 연결된 섬의 소유는 안틸레스 제도의 보석인 쿠바 없이는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49)

16) Theodore Roosevelt, *The Rough Riders* (New York: Modern Library, 1996) xvi 면.



미서전쟁의 승리로 미국은 예견된 대로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과 필리핀을 식민지로 가졌다. 경제적으로는 전쟁 직후 새 양키 회사들이 줄지어 이 지역에 들어왔고, 바나나 상인인 베이커(Baker)와 프레스턴(Preston)이 기존의 자신의 회사를 합병하여 통합 과일 상사(United Fruit Company)를 만들어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230,000 에이커의 땅과 112 마일의 철도를 소유하였다. 이 결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자신의 농업을 미국인이 필요로 하는 바나나 같은 경작물로 대체하여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미국 원주민들은 그들의 주식인 옥수수과 감자가 재배되지 않아 더 극심한 빈곤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 통합 과일 상사는 “20세기의 미국 제국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서전쟁은 공공연하게 미국을 제국주의의 반열에 서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덕분에 미국은 “초강권력(superpower)과 점령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sup>18)</sup>

미국의 역사학 책에서는 미서전쟁이 쿠바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쿠바의 독립투사들과 함께 벌인 미서전쟁에서 승리의 결과는 미국이 독차지하였다. 미국은 흑시라도 쿠바의 수도에 발을 디딘 쿠바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선언할 까봐, 켈릭스토 가르시아 같은 쿠바의 사령관과 군인들을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미국의 윌리엄 셰프터 사령관(William R. Shafter)은 “이 전쟁은 아메리카 합중국과 스페인 왕국 사이에 일어났으니 (...) 투항도 (...) 오로지 미국군대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페레스에 의하면, “셰프터는 쿠바 군인들이 약탈과 강탈을, 가게들에서 훔치고 집들을 약탈하는 것을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산티아고 데 쿠바(Santiago de Cuba)에 못들어 오게 한 것이라고 정당화하였다.”<sup>20)</sup> 이에 가르시아 사령관은 고메즈 사령관에게 사령관 사직 의사를 편지로 쓰면서, “우리는 문명화된 전쟁의 법칙을 무시하는 야만인들이 아니다 (...) 우리가 이것[미국의 오만적 만행]을 비겁함과 야만성으로 견뎌내기에는 우리의 명분을 너무 사랑 한

17) Gonzalez, 앞의 책 57 면.

18) Gonzalez, 앞의 책 121면.

19) Pérez, Jr., 앞의 책 97 면.

20) Pérez, Jr., 앞의 책 98 면.

다”고 항변하였다.<sup>21)</sup> 이 치욕의 상황은 쿠바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서, 1959년 미국의 정치적 간섭을 이기고 쿠바가 혁명을 성공적으로 일으켰을 때 피델 카스트로는 연설에서 이 치욕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는 혁명이 제지당하지 않을 것이다 (….) 이번에는 쿠바에게 다행이게도 혁명이 완성될 것이다. 이번은 미국인들이 도착해서 자신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었던 1895년의 전쟁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겨우 마지막에 개입하여서는 나중에 30년 동안 [쿠바의 독립을 위해] 싸워온 켈리스토 가르시아가 산티아고 드 쿠바(Santiago de Cuba)에 들어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었다”고 말한다.<sup>22)</sup>

지금까지 미서전쟁에서 미국의 “명백한 운명”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다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주권을 박탈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루스벨트가 자신의 책, 『의용 기병대원』(*The rough Riders*)에서 미국적 예외주의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는 제국주의의 양상을 살핀 후 미서전쟁 바로 직전 1895년에 2차 쿠바 리브레 전쟁에서 전사한 호세 마르티의 혼종성에 기초한 반-제국주의 세계관을 비교하기로 한다.

## 더 큰 아메리카”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우리들의 아메리카”의 호세 마르티

테오도르 루스벨트는 제국주의적 아메리카의 수호자로서 미서전쟁을 유도한 장본인이다. G.T.A. 오톨(O'Toole)에 의하면, 루스벨트를 중심으로 “로지(Lodge) 상원의원, 존 해이(John Hay) 등 미국 팽창주의자들로 구성된 상류층 지도자들의 “즐거운 갱”(The Pleasant Gang) 그룹은 “워싱턴 살롱에서 모여 팽창을 모의하였다(..)[루스벨트에게 팽창은] 미국의 영향력과 권력의 확장뿐만 아니라, 자유와 질서의 확장, 그리고 커다란 발걸음으로 평화가 전 지구위에 올 때를 앞당기는 것[이다]. 미국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특혜

21) Pérez, Jr., 앞의 책 98면.

22) Pérez, Jr., 앞의 책 126-27면.

이거나 심지어 의무가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명백한 운명(New Manifest Destiny)이다”고 여겼다.<sup>23)</sup> 이 팽창주의자들은 당대에 강한 미국의 건설을 위해 해군의 능력을 강화시킬 것을 강조하는 알프레드 메이한(Alfred Mahan) 해군제독의 영향을 받았다. 이 영향으로 루스벨트는 1994년 해군전쟁대학(Naval War College)의 연설에서 “더 큰 그리고 더 나은 해군을 위한 청원”이라는 강연을 하였다.

루스벨트에게 메인호의 폭발은 미국의 팽창을 위한 절호의 계기를 제공했다. 루스벨트는 메인호가 폭발했던 당시 해군 고위관료이었는데, 미서전쟁을 일으킬 것을 해군에 강력히 권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원 기마부대인 소위 의용기병대(The Rough Riders)를 창설하여 쿠바의 언덕 위 참호로부터 내려오는 스페인군의 총탄에 부하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몬 오류를 범했다. 가버(D. A. Garber)는 메인호[사건]를 “[전쟁을 하자는 여론을 선동하는] 황색 신문과 상원의원 로지([Henry Cabot] Lodge)와 해군의 차관보(Assistant Sec retary)인 테오도르 루스벨트 같은 팽창주의자들이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사용한” 사건으로 정의 내린다.<sup>24)</sup> 이런 맥락에서 역사가 조지 케넌(George Kennan)은 미국이 “주관적이고 감정적 이유로 전쟁에 의존했고 (...) [미서전쟁] 개념에 있어서나 국수주의적 수사학과 전쟁 히스테리의 위력에 있어서도 하나의 피상성의 예”라고 주장한다.<sup>25)</sup>

23) J. A. G. O'Toole, *The Spanish War: An Ameircan Epic 1898*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4) 91면. 오톨은 이 팽창주의적 야욕을 더 상세히 설명한다. “그들[즐거운 갱]들은 프레드릭 잭슨 터너를 읽었다 (...) 그러나 1890년에 인구조사국은 개척지가 막힌 것을 선포하였다. 이제 정착할 큰 서부 영토가 없었다. 터너는 ‘미국의 에너지는 그 실행을 위해 더 큰 영역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라고 예견하였다. 다른 말로 미국은 개척지를 발견하기 위해 해외로 가더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였다. 그[터너]는 ‘미국 역사에서 개척지의 의미’”라는 논문에서 그의 이론을 전개하였고 루스벨트는 3년 전에 그것을 읽고 (...) 터너에게 ‘제 생각에 당신은 어떤 최고급의 생각들을 생각해냈습니다’라고 말해주었다. 팽창주의가 미국의 기류에 있었던 것이다”.

24) Pérez, Jr., 앞의 책 78면.

25) Pérez, Jr., 앞의 책 70면. 역사학에서 이 전쟁의 일반적 설명은 “불행한,” “불필요한,” “불필요하지만 아마 그나마도 회피될 수 있는,” 그리고 “우매하고 불필요한”이라는 수식으로 절절된다.

무수한 결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 이 전쟁에서 최고의 전리품을 챙긴 사람은 루스벨트였다. 루스벨트는 이 전쟁의 기록서, 『의용기병대』(*The Rough Riders*)를 출간해 전국적인 영웅이 되었고 전쟁 후 대통령이 되어 재선에도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사랑을 받아 “테디 베어”라는 애칭도 받았다. 그러나 루스벨트가 받은 전국민적 애정은 함께 목숨을 걸고 스페인군대와 맞섰던 쿠바의 군인들과 미국 흑인들을 폄하하는 대가로 치러졌다.<sup>26)</sup> 루스벨트는 전쟁 이후에도 영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에드먼드 모리스(Edmund Morris)는 이것을 얻으려는 그의 “광란(frenzy)은 (…) 그의 모범적인 공적 기록에서의 몇 개의 오점들 중의 하나”이며, “TR이 그 유명한 산 후앙 언덕(San Juan Hill. 실제로는 Kettle Hill이라는 산 후앙 고지의 언덕)의 돌진으로 인해 이 영예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메인호의 미스테리만큼이나 괴로운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sup>27)</sup>

루스벨트는 30년 이상이나 쿠바독립을 위해 저항하던 이 저항군을 폄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쿠바 국가 자체를 폄하하였다. 루스벨트는 그가 밟을 달는 순간에 보이는 쿠바의 자연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아서, 그는 “이것이 대부분 울창한 정글로 뒤덮인, 거칠고 가파른 언덕들의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불평하다가, 산티아고 데 쿠바 도시도 “이상하고, 더럽고 낡은 스페인적 도시”라고 묘사한다.<sup>28)</sup> 루스벨트는 승전 후 집으로 귀대하는 순간이 되어야 “나는 [이제야]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적으로서만 간주하였던 폭풍우들도 아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sup>29)</sup> 루스벨트로 대변되는 미국 군인들의 쿠바 폄하는 그들의 부대 소속의 세 동물

26) Roosevelt, 앞의 책 46면. 루스벨트는 쿠바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쿠바 저항군인들을 보면서,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가장 남루한 녀마조각을 걸친 무리였고, 온갖 단계로 낡아빠진 온갖 종류의 소총들로 무장되었다. 첫 눈에도 그들은 심각한 전투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었고 적어도 경찰의 업무에서는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산티아고 출정에 관한 한, 이 목적을 위해서도 이들은 거의 쓸모가 없을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폄하하였다.

27) Roosevelt, *The Rough Riders*. (New York: Modern Library, 1996 ) xviii면.

28) Roosevelt, 앞의 책 46면, 126면.

29) Roosevelt, 앞의 책 129면.

마스코트 중 한 동물인 개, “다소 혐오스럽지만 엄청나게 인지력이 뛰어난 조그만 개”를 “쿠바”라고 부르는 데서 극에 달하였다.<sup>30)</sup>

그러나 루스벨트는 쿠바인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참전한 미국 흑인군인에 대해서도 인종차별적이었다. 루스벨트에 의하면, “그들[미국 흑인 군인들]은 물론 특별히 백인 장교들에게 의존적이다. 때때로 그들도 가장 좋은 백인 계급의 사람들처럼 통솔력 강하고 책임을 가지는 하사관(non-commissioned officer)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적으로 기대되어 질 수 없으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흑인 군대들은 자신들만의 장교들이 항상 있어야만 한다. 반면에 백인 정규군의 경우, 나의 의용기병대에서 하사관들은 그들의 장교가 사살되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 시작되었으면, 혼자서 스스로 전투를 수행해 갈 수 있다.”<sup>31)</sup>

루스벨트의 미국 흑인 군인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들을 지적 능력에서 열등한 것으로 묘사한 부분이다. 루스벨트의 편견과 반대로, 미국 흑인들의 미서전쟁에서의 용맹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며, 윌라드 게이트우드(Willard B. Gatewood, Jr.) 같은 사람은 언론에서조차도 그들의 정체성은 “이름 없는 존재”(nameless beings)로 단지 “미국 흑인 군인”으로만 취급되는 것을 지적하였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비겁함을 잘못 보도한 루스벨트가 심혈을 기울여 쟁취하려했다가 못 받은 영예훈장을 미국 흑인들은 26개나 받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이다.

루스벨트의 미서전쟁 기록서는 결국 타인의 존재를 폄하하고 자신의 시각만을, 즉 백인우월의식적인 남성우월적 아메리카를 그리고 있다. 루스벨트는 전쟁하기 위해 쿠바로 향하는 여정에서도 꺼내 읽은 책이 대몰랭(M. Demolin)의 『앵글로색슨의 우월성』(*Supériorité des Anglo-Saxons*)이었다. 루스벨트에 의하면, 대몰랭은 유럽인보다 앵글로색슨이 우월한 것은 [유럽에서의] 호전성(militarism)이 개인의 창조성을 말살시키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루스벨트는 이 견해에 반대해, “미국의 호전성, 적어도, 자원 관련은 것은 대륙 유럽의 호전성과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옹호한다.<sup>32)</sup> 루스벨트는 미

30) Roosevelt, 앞의 책 134면.

31) Roosevelt, 앞의 책 87면.

서 전쟁을 통해 획득한 “더 큰 아메리카”를 자신의 부대를 방문한 러시아 왕자를 환대하는 부대원인 장교의 말을 빌려서 암시한다. “왕자님, 이 [미서]전쟁의 위대한 결과는 이것이 앵글로 색슨 사람들의 두 부류[남부와 북부]를 통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들은 세상을 채찍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whip the world), 왕자님! 우리들은 세상을 채찍질 할 수 있습니다!”<sup>33)</sup>

제국주의적 시각을 갖춘 루스벨트와 대조적으로, 호세 마르티는 루스벨트가 차별하고 폄하하는 흑인, 쿠바인들 모두를 아우르는 “우리들의 아메리카”를 부르짖는 쿠바의 시인이자 독립 운동가이다. 마르티는 스페인 발렌시아 출신의 아버지와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Canary Islands)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마르티는 10대에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스페인의 감옥에 보내지는가 하면, 평생을 독립운동을 하면서 결국 미국의 뉴욕에서 15년간 망명 생활을 했다. 마르티는 망명지 미국에서도 '쿠바 리브레'를 위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며 쿠바인, 도미니카인, 푸에르토리코인 등 미국 이민자들의 단결을 외치고 그들에게 각 나라의 주권과 각 사람의 인권에 대한 강연과 교육을 해왔다. 마르티는 제국주의적 야망의 실현을 위해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는 미국문화를 경고하며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이 이에 대항하여 “우리들의 아메리카”를 건설할 것을 독려했다.

마르티는 초창기의 청교도들과 다른 “파편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미국의 문화를 지배하면서 백인우월이식을 표출한다고 비난한다.<sup>34)</sup> 마르티는 이런

32) Roosevelt, 앞의 책 30면.

33) Roosevelt, 앞의 책 115면.

34) José Martí, *Our America: Writings on Latin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Cuban Independence*.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7) 306면: “그 파편의 사람들은 니그로 인종을 삼켜버리고, 그들을 노예화하고 그 덕에 살아가며 이웃 나라들을 복종시키고 약탈하였[다] (...) 그들은 ‘라틴 종족에 대한 앵글로-색슨 종족의 필연적인 우월함을 믿는다. 그들은 어제는 노예로 만들고 오늘은 고통을 겪게 만드는 니그로 인종과 그들이 멸종시키고 있는 미국 원주민 인종의 열등성을 믿는다. 그들은 히스파노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주로 미국 원주민과 니그로로 구성되었다고 믿는다. 그들이 이 정도 밖에 히스파노아메리카를 모르는 한 (...) 미국과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동맹이 히스파노아메리카에게 무슨 도움이 되

제국주의적 야망과 인종차별적인 미국을 “괴물”(monster)로 보았고, “나는 괴물 안에 살고 있으며. 그것의 내장을 나는 알고 있다--그리고 나의 돌팔매는 다윗의 돌팔매이다”고 말한다.<sup>35)</sup> 마르티는 메인호 사건으로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기 전인 1895년에 벌써 뉴욕의 기자들로부터 미국이 쿠바를 합병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독립전쟁을 조직해 지도자로 전쟁을 지휘한다. 후퇴하라는 사령관 고메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진격하다가 5월 19일 총탄에 사망하게 되고 그의 시체는 방치되었다가 나중에 발견되었다. 마르티는 “괴물”과의 합병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쿠바 전쟁은 (...) 쿠바의 미국 합병을 방지하기 위해 아메리카에서 적시에 일어났다”고 말한다.<sup>36)</sup>

마르티가 죽기까지 미국과의 합병을 반대해 쿠바 스스로 독립을 하도록 노력한 이유는 “미국이 일단 쿠바에 들어오면, 누가 그것[괴물]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혹은 왜 쿠바가 (...) 스스로 할 수 있는 순수하고 유능한 국가가 아니고 전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 인위적 국가로 남아야 하는가? 나는 나의 국민을 위해 더 확실한 기초를 원한다 (...) 쿠바에 있어서 평화는 미국과 독립하여서만이 가능하다”라는 믿음 때문이다.<sup>37)</sup>

마르티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괴물”로서만이 아니라 “수수께끼”(an enigma)라고도 표현하였다. 마르티는 “우리가 더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왜냐하면 축약해서 말하건대, 이것은 하나의 수수께끼로서 우리의 문 앞에 서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고뇌에 찬 나라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한다. 우리는 우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전쟁, 그리고 이 섬을 나중에 손안에 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독립] 전쟁을 반대하려는 이 이웃의 조용한 결의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지 모를 그 전쟁을 향하여 돌진하기도 전에, 공식적으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노라고 호언장담하는 이 탐욕스런 이웃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sup>38)</sup>

---

겠는가?”.

35) Martí, 앞의 책 347면.

36) José Martí, *José Martí: Selected Writings*. (New York (Penguin Books, 2002) 346면.

37) José Martí, *Our* 앞의 책 246면.

38) José Martí, *Our* 앞의 책 244면.

마르티의 “탐욕스런 이웃” 인 미국은 마르티가 예견한 것처럼 쿠바가 독립이라도 할까 싶어 마르티가 3년 동안 모금한 \$58,000 달러를 들여 전세를 낸 새 세 척이 쿠바로 이동하려 하자 이를 재빨리 진압한다. 이 와중에 마르티가 “가장 두려워 한 것은 혁명적 지도자들에 대한 특권과 신망의 상실이었다.”<sup>39)</sup> 마르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에 의한 배 세척의 포획 사건은 오히려 쿠바인들의 독립의 열기를 불 질렀으며, 쿠바 독립전쟁의 총사령관 고메스는 “이 사람[마르티]은 몽상가나 예견자가 아니라 강한 균형 잡힌 정신을 가진 진정한 조직의 천재이며 사람들의 거스를 수 없는 통치자이다”라고 감탄하며 독립전쟁에 출정하였다.<sup>40)</sup> 로베르토 곤살레스 에체베리아(Roberto Gonzalez Echegarria)에 의하면, “마르티의 가장 위대한 정치적 업적은 10년 전쟁(Ten Year War)으로 실의에 차고 분파를 일으킨 퇴역들을 자신과 새 독립투사들의 [독립 전쟁] 결의에 대해 확신시킴으로써 함께 통합시킨 것이다.”<sup>41)</sup> 마르티는 흑인에 대한 공정한 시각과 그들을 대한 필사적인 조정노력 때문에 10년의 긴 전쟁과 흑인에 대한 차별로 불만이 큰 흑인 사령관 마세오과 다른 독립투사들 간의 갈등을 극복시켰다.

마르티가 쿠바의 독립을 위한 것은 비단 쿠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탐욕스런 이웃”이 남아메리카 전체에게 행사할 제국주의적 야욕 때문이다. 마르티는 “안틸레스 제도는 아메리카의 축에 널리 펼쳐 있다; 노예화되면 이것 [섬]들은 [미국을] 의심하고 그것에게 권력을 주지 않으려 하는 [남미]세계에 대항하는 [미국] 제국주의 공화국의 전쟁을 위한 부교(浮橋)(pontoon) 다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단순히 미국적 로마(an American Rome)의 한 요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를 얻는다면 (...) 이것들은 [미제국에 대항하는] 계속적인 균형, 위협받은 스페니쉬 아메리카를 위한 독립의 보장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sup>42)</sup>

마르티는 제국주의적 미국에 대항하여 ‘우리의 아메리카’를 위한 전략으로

39) José Martí, *Our* 앞의 책 52면.

40) José Martí, *Our* 앞의 책 360면.

41) José Martí, *José* 앞의 책 ixv면.

42) José Martí, *Our* 앞의 책 360면.



차이성을 존중하는 융합의 정신을 택한다. 마르티는 카리브계 흑인 인종에게 공평하고 인종적 차별에 대항하는 담론을 형성하였지만 그렇다고 카리브계 흑인들이 “나의 인종”이라 외치며 자신의 인종을 특권화 하는 것도 반대한다. 마르티에게 “니그로는 그가 흑인이기에 다른 인종에게 열등하거나 우월하지도 않다; 백인은 ‘나의 인종’이라고 말할 때 너무 불필요한 말을 널리 쓰며, 아프리카계 사람들도 같은 진술을 할 때 똑같이 그렇다. 인간을 분리시키는 모든 것, 범주로 인간을 분리시키거나 몰아대는 것은 인류에 대한 적이다”라고 가르친다.<sup>43)</sup>

마르티는 아프리카계 사람들과 더불어 모두의 독특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적 융합의 사회를 “우리의 아메리카”의 이상으로 삼았다. 마르티는 남미의 독립 지도자 산 마르틴(St. Martin)을 예찬하면서도 그가 라틴 아메리카 각 나라의 특이성과 차별성을 무시하며 독립을 지향하는 것을 반대한다. 마르티는 여러 다른 집단의 독특성이 존중받는 “다수-보편성”(pluri-versality)을 지향하고 미국 제국이 상징하는 호전성(militarism)에 반대한다. 로베르토 에체베리아에 의하면, “마르티는 자유 쿠바에 대한 그의 비전을 요약하기를, ‘모두와 더불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적이고, 다수적인 그리고 최근에 설립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유 쿠바]이며 (...) [독립운동의] 시민주의적 틀을 강력하게 주장했다.”<sup>44)</sup>

마르티의 ‘다수-보편적’ 세계관은 그가 예견한 이후 오늘날에 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미국이라는 “이상한 이웃”의 글로벌적 차원의 제국적 경제적 약탈과 정치적 간섭에 대응하는 유효한 전략으로 드러난다. 미국 제국과 연관하여 발생하는 산재된 사회문제와 주권 침해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주도의 글로벌 경제의 여파로 끊임없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미 정착하여 미국의 주류에 대항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소외받지 않으려는 많은 라틴계 이민자(라티노)들의 현실을 생각할 때, 오늘날 라티노계 이문가인 호세 다비드 살디바르의 혼종적 다문화주의 시각을 통해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저항

43) José Martí, *Our* 앞의 책 311면.

44) José Martí, *José* 앞의 책 xv면.

담론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마지막 핵심 과제이다.

## 제국(Empire)과 제국주의: 경계지(borderlands)와 경계(border)

마르티가 “괴물”, “이상한 이웃”이라는 미국에 대해 경고한 바대로, 카스트로의 표현에 의하면, “향수를 뿌린 식민지”(perfumed colony)인 쿠바는 미서전쟁에 의해 약탈되기 전 스페인 식민지시절에도 많은 미국인 농장주들이 사탕수수 농장 등 경제를 움켜지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쿠바인 중에 미국과의 합병을 주장하는 “합병주의자들은 나라가 이미 미국과 엄청난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연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합병을 원하였다. 사실 19세기 후반기에 쿠바는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지만,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 있었다.”<sup>45)</sup> 쿠바는 물론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20세기 후반과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경제적 식민지로 남아있다. 과거에 유럽인들이 뉴욕주의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를 통해 이주하였다면, 오늘날은 미국의 남서부의 리오그란데 경계를 가로질러 이주한다. 또한 더 전문적 지식인들은 뉴 엘리스 아일랜드(New Ellis Island)라고 불리는 LA의 공항을 거쳐 이주한다. 현대 미국으로의 많은 남미노동자들의 이주는 1848년에 남미의 선조들로부터 획득한 엄청난 영토의 물자와 자원으로 인해 경제적력이 풍부한 미국 때문이므로 19세기의 미국과 남미의 관계는 현대의 미국과 남미의 나라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미국은 2차 대전시 군수물자 제조업을 통해 이득을 챙기던 시절에 경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하던 1942년부터 필요한 노동인력을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수급하기 위해 브라세로 프로그램(초청노동 프로그램. bracero (request labor) program)을 실시하였다. 데이빗 호세 살디바르에 의하면, 1950년대 타임 잡지는 이런 멕시코 초청노동자(braceros)를 “‘미국을 침범하는 (…)'못수염을 기른 밀짚모자 쓴 사람들,’ ‘필사적인 개미들의 대열’”이라고 묘사했

45) José Martí, José 앞의 책 xiv면.

다.<sup>46)</sup> 그러나 1950년대에 이 노동력들이 필요 없어지자 남서부 국경지대의 경비를 강화하고, 불법이민자, 라틴 아메리칸들을 제거하는 “불법노동자 [퇴치]운동(Operation Wetback)”([Wetback.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느라 등이 젖은 불법이민자]을 실시하였다.<sup>47)</sup>

미국은 불법 이민자 문제 외에도 미서전쟁에서 얻은 푸에르토리코에 대해 “바깥의 영토”(an unincorporated territory)라는 개념으로 그 식민지 속성을 위장하다가, 1917년에야 겨우 미국의 시민권만 부여할 뿐, 본토인처럼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 “내적 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를 행하고 있다. 또한 카스트로의 쿠바에 대해서는 경제를 봉쇄하고 쿠바인들에게 송금을 금지하는 등 여전히 미국적 예외주의와 제국주의적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혼종성 혹은 경계이론(border theory)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유효성과 실천적 방안을 고려해 경제화된 제국주의의 형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현대 지구 위의 주체는 미국적 예외주의에 입각한 미국 중심의 경제적 정치적 글로벌화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 미국의 메트로폴리스인 뉴욕의 사람들은 무역과 금융의 주체로서 글로벌화를 부추기고,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의 원주민들은 미국중심적 글로벌 경제 발전으로 인해 주거지와 문화는 물론 주권을 위협받는다. 일반적으로 이런 미국주도의 글로벌화의 특징은 초국가성(transnationality)과 탈경계(transboundaries)로 압축된다. 글로벌주의 시각에 의하면, 뉴욕의 전자기업의 소유주는 반드시 미국인이 아니라 인도출신의 사람일 수 있다.

에미 캐플란(Amy Kaplan)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와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처럼 1898년 미서전쟁을 지휘하고 파나마운하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강압적으로 건설한 루스벨트 대통령을 “구식의 유럽적 제국주의를 추구한 것으로, 그리고 [1차 대전 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만든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을 제국의 경계 없는 세계에서 국가의 주권이 용해되는,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체제의 도래를 예시한 것”으로 보는

46) J. Salldivar, 앞의 책 109면.

47) Sadowski-Smith, 앞의 책 128면.

것을 반대한다.<sup>48)</sup> 캐플란에 의하면, 이렇게 “제국과 제국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미국적 제국주의의 역사를 배제시키는 것이며 미국적 예외주의에 대한 신념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sup>49)</sup>

1890년대부터 1차 대전에 이르는 “진보적 시기”(Progressive era)에 “위대한 열린 미국의 공간이 드디어 끝이 나서, 심지어 미국 원주민들을 더 조그만 영역으로 멀리 쫓아내 버려도 [영토가] 충분하지 않은” 시기가 도래되었다.<sup>50)</sup> 하트와 네그리에 의하면, 루스벨트가 내놓은 이 “공간의 폐쇄”에 대한 해법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국적 모델을 버리고 “세실 로즈의 대중주의적 식민 제국주의와 프랑스 제 3공화국의 진보적 제국주의와 유사한 방법과 목표를 따르는” 것이었다.<sup>51)</sup> 반면에, 윌슨의 해법은 유토피아적이지만, “미국 헌법적 기획의 확장에 기초한 세계질서라는 그의 개념, [즉] 새로운 세계 권력 망들의 산물로서의 평화라는 개념은 강력하고 영구한 기획이었다. 이 기획은 미국의 원래 헌법의 논리와 확장하는 제국에 대한 그것의 개념과 일치하였다. 유럽의 근대주의자들은 이 일종의 포스트모던 제국의 기획을 조롱할 수밖에 없었다.”<sup>52)</sup> 하트와 네그리는 이 윌슨의 비전이 “[포스트모던적] 제국으로의 통과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다 (...) 여기서 우리는 제국주의와 제국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으며, 이런 윌슨적 유토피아들에서 한 위대한 바보의 지성과 선견을 볼 수 있다”라고 예찬한다.<sup>53)</sup>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뉴욕에서 자라고 콜롬비아대학을 졸업한 라티노 학자, 후안 곤살레스(Juan Gonzalez)는 하트와 네그리의 윌슨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예찬을 반박한다. 곤살레스에 의하면, 1898년 미서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귀화한 미국시민인 토마스 에스트라다 팔마(Thomas Estrada Palma)를 대통령으로 지명한 후 그의 재선과정에서 투표 위조가 만

48) Kaplan, 앞의 책 15면.

49) Kaplan, 앞의 책 15-16면.

50) Micheal Hardt and Antonio Negri, *Empir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2000) 172면.

51) Hardt and Negri, 앞의 책 175면.

52) Hardt and Negri, 앞의 책 175면.

53) Hardt and Negri, 앞의 책 176면.

행해 많은 폭력적 시위들이 야기되자 찰즈 E. 마군(Charles E. Magoon) 장군을 보내 쿠바를 두 번째 점령한다. 미국은 그 이후 프랭크 스타인하트(Frank Steinhart) 같은 미국인에게 하바나 전기회사(Havana Electric)를 주고, 많은 미국 시민들에게 쿠바의 사탕수수 농장 등을 수여받도록 혜택을 주었다. 1912년경에는 일 만 명의 미국인들이 철도, 공공시설, 광업과 제조업 회사, 설탕과 담배 농장을 소유하였고 “이 땅의 4분의 3 이상이 외국인에 의해 소유되었다.”<sup>54)</sup> 이런 와중에 1917년에 윌슨 대통령은 “또 다른 투표 위주로 오염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재선된 미국이 후원하는 보수지도자 후보, 마리오 가르시아 메노칼(Mario García Menocal)에 반대하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4번째로 군대를 파견하였다.”<sup>55)</sup> 설상가상으로, 윌슨 대통령은 히틀러로 인해 유럽에 전운이 깃들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히틀러와 손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염려로 인해, 당시 대통령, 후안 이시드로 히메네스(Juan Isidro Jiménez)에게 “미국 시민을 도미니카 정부에서 요직에 임명할 권리와 그 나라의 군대를 미국에서 훈련한 국가방위대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였다.<sup>56)</sup> 곤살레스에 의하면, “미국에 의해 심어진 히메네스조차도 그것 [윌슨대통령의 제안]들을 거부하였다 (...) [이에] 1916년 5월 윌슨은 군대를 보내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령을 발족시켰으며 언론을 탄압하고 수 백 명의 반대자들을 감옥에 넣었다. 이 점령은 8년이나 지속되었다.”<sup>57)</sup>

하트와 네그리에 의해 탈영토적이고 초국가적 제국의 선견적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윌슨 대통령의 미국정책이 제국주의적이고 국가중심적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글로벌화의 제국이 초국가성을 대변하기커녕 여전히 제국주의적이고 국가중심적임을 반증한다. 실제로 현대 글로벌화의 주체가 미국이며, 경제, 정치적 결정이 미국의 기업을 중심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은 IMF 위기를 겪은 멕시코와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반미성향의 빨뿌리 운동이 활성화되고, 남미국가들은 라틴국가연합(Union de Naciones Sudamericanas)을 결성해

54) Gonzalez, 앞의 책 65면.

55) Gonzalez, 앞의 책 65면.

56) Gonzalez, 앞의 책 65면.

57) Gonzalez, 앞의 책 70면.

미국중심의 세계경제 기구에 대항한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예를 들어, 2001년 미국 위주의 경제이윤 추구적 글로벌화와 이를 실현하는 도구인 세계 경제포럼에 대항하여 2001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12,000개의 세계의 비정부기구(NGO), 사회운동가 등이 모여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을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2004년 7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시작된 아메리카 사회포럼과 멕시코의 치아파스에서 원주민들에 의한 사파티스타 저항운동 및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원주민회의도 결성되었다.

미국문화의 팽창주의에 대한 반격은 브라이스 트레이스터(Bryce Traister)는 “경계 쇼핑. 미국학과 반-국가”라는 논문에서도 드러난다. 트레이스터는 초국가적 위상과 다문화주의적 혼종성과 경계의 혼종성을 강조하는 담론이 역설적으로 그 담론들이 전복하고자 하는 미국중심의 초국가적 글로벌화의 담론과 유사함을 지적한다. 트레이스터는 캐롤린 포터(Carolyn Porter)의 진술을 빌려서 현대의 미국학이 살디바르 같이 경계이론의 담론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폭풍』이라는 극에서 주인, 프로스페로에 의해 하인으로 취급 되었던 유색인종, 켈리반을 전경화시키는 “켈리반 학파”를 이룬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학이 영토적 독특성이 아니라 담론적 다양성에 입각한. 문학의 국가성이 아니라 문학의 국가의 해체에 입각한” 모델을 가진다고 지적한다.<sup>58)</sup> 트레이스터는 캐롤린 포터의 말을 인용하여서, “미국 문화 정체성에 대한 포스트-국가적 혹은 메타-영토적 이론은 바로 그런 비판[이론]이 저항하고자 하였던 바로 그 제국주의적 주장들을 학문적 용어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난한다.<sup>59)</sup> 결론적으로 트레이스터는 “이 국가의 경계에 대한 공격이 (...) 소위 기업적 글로벌리즘의 힘없는 국가(weak state)에 대한 소망에서 그 동지를 만난다 (...) 경계이론을 계속 수정되는 미국주의 연구-상상계에 주입시키는 행위는 현대 차별 글로벌기업이 소비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포함한 그 기본적인 입장을 반복한다”고 비난한다.<sup>60)</sup>

트레이스터는 글로벌화가 주장하는 “힘없는 국가(weak nation)”에 대한

58) Sadowski-Smith, 앞의 책 32면.

59) Sadowski-Smith, 앞의 책 39면.

60) Sadowski-Smith, 앞의 책 33면.

욕망이 가져다준 “놀라운 형태의 종족적, 인종적 그리고 소국분할된[발칸화된] 국수주의의 증가”를 고려할 때,<sup>61)</sup> 경계이론의 포스트-국가적 접근이 이해되기는 한다고 시인한다. 그렇지만 그는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미국의 패권적 경제 때문에 쓴 소비품을 찾아 미국에서 쇼핑을 하여 경제가 더욱 피폐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할 때에만 “‘미국’의 유동성이 붓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sup>62)</sup>

미국의 문화적 경제적 패권주의에 대한 트레이스터의 방어는 국가적 정체성에 호소하지만, 월터 미놀로는 끝까지 패권적 미국의 제국주의적 횡포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다문화주의 및 잡종성 안에서, 특히 남미의 아메리카사회포럼(Social Forum of the Americas)과 같은 초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초국민적인 기구에서 발견한다.<sup>63)</sup> 월터 미놀로는 미국 중심의 일원적 보편(universal)세계에 대항하는 대안적 세계, 즉 다수보편적(pluri-versal) 세계에 대한 비전이 세계사회포럼보다 훨씬 앞서서 1990년대 초반에 사파티스타가 “많은 세계가 공존하는 하나의 세계”라는 비전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sup>64)</sup> 미놀로에 의하면, “세계사회포럼과 사파티스타가 거부하는 것은 근대성을 대표하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인 기독교/보수주의, 자유주의, 맑스주의의 바탕에 깔려 있는 전체주의이다 (….) 사파티스타와 세계사회포럼/아메리카사회포럼은 타자에 대한 우월성을 경합하는 추상적 보편주의가 종말에 이르렀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준다.”<sup>65)</sup>

트레이스터는 살다바르의 경계이론이 미국 건국초의 이동성 예찬과 유사하게 이동성을 강조하므로 미국적 국수주의를 반복하는 위험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가적 정체성의 확립을 옹호하였다. 이런 트레이스터의 입장은 미놀로가 예찬한 다문화주의적 저항성을 간과한 결과 나온 비판이다. 에미 캐플란도 다문화주의의 비정치성을 비판하지만,<sup>66)</sup> 초기 미국학이 크게

61) Sadowski-Smith, 앞의 책 47면.

62) Sadowski-Smith, 앞의 책 47-48면.

63) 미놀로, 앞의 책 237-38면.

64) 미놀로, 앞의 책 238면.

65) 미놀로, 앞의 책 238면.

66) Kaplan and Pease, 앞의 책 15면. 캐플란에 의하면, “미국문화가 다양성과 다성

빛진 “개척지” 개념을 살디바르의 현대판 “개척지”, 즉 안잘두아의 “변방”(la frontera)과 접목시켜서 그 차이점을 강조한다. 캐플란은 초기의 개척지는 “주변”과 중심의 개척지였다면, 치카노연구의 개척지는 경계 개념과 달리 “경계지(borderlands)의 장”으로 “다차원적이고 초영토적”이라고 본다. 캐플란에게 이 “경계지”는 “거대도시의 다운타운에도 나타나”며, “탈중심화된 코스모폴리탄주의”(decentered cosmopolitanism)의 토대가 된다.<sup>67)</sup> 캐플란은 비록 경계이론의 연구가 “제국주의적 권력으로서 미국의 논의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고, “문화와 제국주의의 포스트콜로니얼 연구에서 미국의 부재는 바깥으로부터의 미국적 예외주의를 재생산한다”고 비판하지만,<sup>68)</sup> 이런 연구가 미국의 다른 나라와의 제국적 관계를 의식하는 한, “포스트콜로니얼리티 정치학과 이론을 통해 (...) 민족성의 개념을 재 개념화함으로써 미국학 연구에 국제적 시각을 가져다”준다고 본다.<sup>69)</sup>

이런 맥락에서 호세 살디바르의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 담론은 트레이스터가 간주하였듯이 무조건적으로 비판되어야 할 담론이기는커녕 “미국학 연구에 국제적 시각을 가져다”줄 유효한 저항담론으로서 더 깊은 주목을 받아야 한다. 호세 다비드 살디바르의 담론은 급진적 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이 비정치적이고 미국적 담론을 반복한다는 비판과 달리, 반-제국주의적이고 미국의 패권적 위치에 대한 비판에 기초한다. 이런 살디바르의 입장은 살디바르가 쿠바의 맑스주의자, 페르난데스 레타마르(fernandez Retamar)를 언급하면서 마르티를 다른 무엇보다도 “앵글로중심주의와 자본주의”의 비판가로

---

성(multivocality)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명확한 정체성으로서의 미국은 자기의 경계 안에서 다른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글로벌 문화적 정체성들과의 국제관계적 대면들로부터 독립되어 응집된 것으로 본다. [이런] 다문화주의의 비판적 힘은 ‘합의’[consensus]에 대한 새로운 버전에 의해 소생될 가능성에 열려 있다. 예를 들어, ‘새 미국학’(New American Studies)에서 필립 피셔(Philip Fisher)는 다문화주의와 젠더, 인종, 그리고 민족성(ethnicity)를 축약하여, 미국국수주의의 획일화된 요소들과 변증법적 긴장관계에 있는, 자신이 새로운 ‘지역주의’(regionalism)라고 말하는 것으로 환원시킨다.”

67) Kaplan and Pease, 앞의 책 15면.

68) Kaplan and Pease, 앞의 책 17면.

69) Kaplan and Pease, 앞의 책 17면.



서 예찬하는 사실에서 드러난다.<sup>70)</sup> 또한 호세 살디바르는 마티네스 만큼이나 예리하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강조하는 자유와 발달에 대한 앵글로중심적 이데올로기를 의식하고 있다. 호세 살디바르는 “미국의 주물화--종속, 정복과 군사개입의 현실을 자유, 미덕 그리고 ‘발달을 위한 동맹’으로 전환하는--의 코드가 부정된 이후, 마르티의 ‘우리의 아메리카’(1891)와 페르난데스 레타마르의 『칼리반』(*Caliban*)은 (...) 계몽적인 미국적 문화연구 비판의 기초가 되는 텍스트이다”고 설명한다.<sup>71)</sup> 호세 살디바르는 기존의 미국학처럼 앵로색슨 위주의 하향식(톱 다운)의 연구가 아니라 “상향식 연구(from the bottom up)”를 강조한다. 호세 살디바르에 의하면, 1960년대 이후의 문화연구는 미국문화에 대한 “기존의 합의를 완전히 파열시켜”<sup>72)</sup> 다시 전체적으로 구조되었고, 이 새로운 시도는 마르티의 계보학적 텍스트들과 페르난데스 레타마르에서 이미 시작되었다.<sup>73)</sup>

호세 살디바르의 마르티 연구는 마르티가 철저하게 “자본주의와 앵글로주의에 대한 맹렬한 문화비판”을 하였으며 그의 반제국주의가 미국의 명백한 운명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임을 보여준다.

페르난데스 레타마르는 그의 많은 마르티 연구에서 북미문화에 대한 그의 저항적 비판과 미국 제국을 생활양태로서 거부하는 쿠바-맑시스트 이데올로기 사이의 연결을 보여 준다 (...) [레타마르의 마르티 연구에서] 마르티는 우리의 아메리카의 모든 토속적 민족들의 단결을 주창하면서 쿠바의 주변적 위상을 중식시키는 첫 필요한 단계를 밟았다. 1960'년 경에, 체계바라는 쿠바에 대해 (...) 말할 수 있었다. '누군가가 [현대의 쿠바] 혁명의 중요성을 의심한다면 (...) 사람들이여, 우리는 강하고 위험하다. 우리는 미국적 환경을 오염시켰고 [미국제국주의의 앞잡이인 라틴 아메리카 국가 지도자들인] 트루히요(Trujillo [도미니카의 독재자(1930~61)])와 소모사

70) J. Saldívar, *The Dialectics of Our America: Genealogy, Cultural Critique, and Literary History* 5면.

71) J. Saldívar, *Dialectics* 앞의 책 5면.

72) J. Saldívar, *Dialectics* 앞의 책 xvii면.

73) J. Saldívar, *Dialectics* 앞의 책 5면.

(Somoza [니카라과아 독재자 46년간 통치])의 달콤한 민주주의를 위협하였다.<sup>74)</sup>

이렇게 마르티에 의해 큰 영향을 입은 레타마르는 서구대륙의 아메리카의 “발견”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아메리카 거주민들을 “정치, 식물류와 동물류가 인간에 의해 발견되는 양” 서구중심적으로 전개된 것을 비난하면서, “새로운, 범아메리카적인 포스트콜로니얼적 정체성[과] (...) 범아메리카적 ‘연대’”를 주창한다.<sup>75)</sup>

호세 살디바르는 마르티와 레타마르의 범아메리카적 동맹의 호소의 결과로 코르타자, 가브리엘 마르케즈, 후안테스와 호노요사, 체 게바라와 카스트로 같은 범아메리카적 지도자들이 나왔다고 본다. 호세 살디바르에 의하면,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프로스페로[먼로주의]을 거부하면서 주창한 것은 가르시아 마르케즈와 그의 범아메리카적 후예들에 의해 담론적 차원에서 완성되었다. 로버트 쿠버(Robert Coover)의 표현을 빌면, 라틴 아메리카로부터의 새로운 담론은 [따라서] 한동안 이 지역의 가장 저항적이고 위험한 수출이 되었다”.<sup>76)</sup>

이런 반미적 저항의 결과는 미국의 “군함식 정치”(gunboat politics)로부터 문화적 회유에 의한 정치로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쿠바 혁명의 이후에야 엄청난 연구비를 “공격적으로” 뿌린 미국 덕분에, 로베르토 곤살레스 에체베리아에 의하면, “[라틴계] 문학잡지를 위한 자금공급은 1960년대의 새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창조[와 수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up>77)</sup> 호세 살디바르는 미

74) J. Saldívar, *Dialectics* 앞의 책 15면.

75) J. Saldívar, *Dialectics* 앞의 책 9-11면. 또한 다음의 진술이 위의 사실을 극명히 보여준다. “1882년 경에 마르티는 미국이 자유와 품위의 수사학을 포기한 것을 확신하였다(...) 그는 제국주의의 문법을 읽었으며 (...) 경제적 보상의 착출--안드레 군데 프랑크가 ‘저개발의 개발’(‘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라 부르는--을 강조하였다. (...) 페르난데스 레타마르의 마르티 작품에 대한 해석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마르티가 우리의 아메리카의 모든 토속적 민족들의 단결을 주장함으로써 쿠바의 변방적 위상을 종식시키는 첫 걸음을 디었다.” J. Saldívar, *Dialectics* 앞의 책 9-11면.

76) J. Saldívar, *Dialectics* 앞의 책 20-21면.

국이 이런 노력으로 호르헤 루이 보르헤스와 같은 “이상주의” 문학 심미주의의 문학을 통해 마르케즈의 저항문학이 갖는 힘을 희석하려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것[미국자본의 공격적 투자]은 ‘이상주의자’ 문학 미학이 미국 대학에 수입되는 것과 이데올로기적 연관이 있는데, 이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같은 전형적인 피식민 작가들의 수입이 라틴 아메리카의 급진주의를 소위 자유 세계에게는 안전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sup>77)</sup>

## 결론

살디바르의 마르티 연구는 다문화주의의 비정치성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킨다. 날로 증가하는 미국 중심의 경제와 외교의 전지구적 억압에 대항하여, 다문화주의가 눈에 보이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도 다시 국가적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시도나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잠재력을 폄하하는 일은 오히려 공동의 적인 지구상의 “제국주의적 횡포”를 제지하는 데 해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트레이스터처럼 미국의 패권주의적 횡포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가의 정체성에 호소하는 것은 올바른 저항담론의 모델이 될 수 없다. 루스벨트의 미국문화와 마르티의 반-제국주의적 저항담론의 비교연구는 미국이 예외주의적 국가관과 앵글로색슨 중심적인 인종적 정체성을 고수하고 팽창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폭력적 구조 속에 타자로 자리매김된 라틴문화의 저항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미서전쟁 이전의 마르티와 현대의 호세 살디바르와 윌터 미놀로의 저항 담론은 더 이상 국가나 인종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인종을 넘어 초국가적이고 초민족적인 아메리카사회포럼 같은 전지구적 저항단체가 보여준, 혼종성과 다문화적 차이들의 공존을 강조하는 경계지와 상향식 풀뿌리 저항 운동에 기초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준다. 이제 미국으로 대표되는 전지구적 제국은 과거 미국의 군함정치에서처럼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더 교묘하게 금융과 외교에 입각한 억압적 기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새로

77) J. Saldívar, *Dialectics* 앞의 책 20-211면.

78) J. Saldívar, *Dialectics* 앞의 책 11면.

운 제국의 횡포에 대한 효율적인 저항담론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치아파스의 사파티스타 같은 운동이 전지구적으로 각 억압받은 단체와 연대하여 효율적으로 제국의 억압기계에 저항하였듯이, 살디바르와 미놀로의 다문화주의가 강조하는 혼종성, 다른 차이성들의 공존의 가능성을 기초로 전지구적 시민운동의 연대를 증가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미놀로, 월터.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식민적 상처와 탈식민적 전환』(*The Idea of Latin America*). 김은중 역. 그린비. 2010.
- Anzaldúa,, Glorida. *Borderlands/LaFrontera: TheNewMestiza*. SanFrancisco: AuntLuteBooks, 2007(1987).
- Calderón, Héctor and José David Saldívar, eds. *Criticism in the Borderlands. Studies in Chicano Literature, Culture, and Ideology*. Durham. Duke Univ. Press, 1991.
- Chávez, John R. *The Lost Land. The Chicano Image of the Southwest*. Albuquerque. Univ. of New Mexico Press, 1984.
- Hardt, Micheal and Antonio Negri. *Empir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2000.
- Gatewood, Jr., Willard B. *"Smoked Yankees" and the Struggle for Empire. Letters from Negro Soldiers 1898-1902*. Fayetteville, Univ. of Arkansas Press, 1987.
- Gonzalez, Juan. *Harvest of Empire. A History of Latinos in America*. New York. Penguin Books, 2000.
- Kaplan, Amy. *The Anarchy of Empire in the Making of U.S. Culture*.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2002.
- Kaplan, Amy and Donald E, Pease, eds. *Cultures of United States Imperialism*.

-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3.
- Kennan, George F. *American Diplomacy 1900-1950*.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9.
- Keating, Ana Louise, ed. *The Gloria Anzaldúa Reader*. Durham: Duke Univ. Press, 2009.
- Martí, José. *Our America. Writings on Latin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Cuban Independence*.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7)
- \_\_\_\_\_. *José Martí. Selected Writings*. New York. Penguin Books, 2002.
- Michaelsen, Scott and David E. Johnson. *Border Theory. The Limits of Cultural Politics*. Minnesota. Univ. of Minnesota Press, 1997.
- O'Toole, G.J. A. . *The Spanish War. An Ameircan Epic 1898*.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4.
- Pérez, Jr. Louis A. *The War of 1898. The United States & Cuba in History & Historiography*. Chapel.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98.
- Roosevelt, Theodore. *The Rough Riders*. New York. Modern Library, 1996.
- Sadowski-Smith, Claudia, ed. *Globalization on the Line. Culture, Capital, and Citizenship at U.S. Borders*. New York. Palgrave, 2002.
- Saldívar, José David. *Border Matters. Remapping American Cultural Studie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7.
- \_\_\_\_\_. *The Dialectics of Our America. Genealogy, Cultural Critique, and Literary History*. Durham. Duke Univ. Press, 1991.
- Saldívar, Ramón. *Chicano Narrative. The Dialectics of Difference*.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1990.
- 슬라보예 지젝, 김상환 외 옮김.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데올로기: 20세기에 대한 철학적 평가』.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 ABSTRACT

## A Study of “Missed Encounter” between American Culture and Latin Culture and the Border Theory

Myoung Ash Shin

Many States such as Arizona, Texas, New Mexico, Colorado, California, New Mexico, Florida were obtained either from Spanish Empire or from Mexico. In 1848 due to the Guadalupe-Hidalgo treaty America could obtain half of the original territory of Mexico. American identity cannot be understood without the history of American expansionism further consolidated by the Spanish-American War in 1898, which brought other ex-Spanish colonies such as Guam, Puerto Rico, the Philippines to the US. The US's interest in these territories dates back to the Monroe doctrine in 1823 when Monroe “declared the Americas off-limits to any new European colonization.” America justifies their expansion based on the notion of Manifest Destiny which was created by O'Sullivan at the height of American fever to annex Texas to US. The intent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Anglo-Saxon and Latin Culture clashed against each other especially right before and after the Spanish-American War. In this study the American hero, Theodore Roosevelt and Latin American hero, José Martí will be compared, though they did not meet each other during the Spanish-American war due to Martí's early death in 1895 at the battle for the Cuba Libre. Their comparison is significant in that the former represents the American expansionist spirit and the latter the spirit of Anti-imperialism and Anti-Anglocentrism. Along with the concept of Manifest Destiny of America, ‘American exceptionalism’ is also mentioned which motivates U.S. to expand further even after the Spanish-American war in the form of 'informal imperialism' characterized by ‘gunboat politics’ of the US.

These discussions will draw attention to how recent theorists such as Bryce Traister criticizes the Border Theory represented by José David Saldívar. Here the Border Theory is criticized to repeat the discourse of the globalized capitalism which prefers the weak state and the transnational aspects by focusing

on the in-betweenness of the border.

In the end the paper will focus on how the Border theory as represented by Saldívar is political enough and sets up a resistant example against American expansionism of today in its focus on the call for pan-American and pluri-versal subjectivity of the borderlands. This point will be supported by a discussion of how Saldívar's view is confirmed by Walter Mignolo who advocates the "bottom up" resistance of the indigenous people of Chiapas and other social forums such as World Social Forum and the Social Forum of the Americas derived from the Zapatistas' movement whose motto is "A World in which many world co-exist."

---

#### Key Words

미서전쟁, 탈식민주의, 호세 살디바르, 미놀로

Spanish-American War, Post-colonialism, Jose Saldívar, Mignolo

논문접수일: 2011. 10. 15.

심사완료일: 2011. 12. 05.

게재확정일: 2011. 12. 09.